POSTING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소식지

2020. 09.

Vol.7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동북권역 | 계양구 – 경인 아라뱃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POSTING

발행일	2020. 09.
발행호	Vol.7
발행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편집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행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http://www.ippi.or.kr
전화	032-580-6392
디자인 및 제작	032디자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0. 09. Vol.7

CONTENT

4 ..... **보건사업 Brief**
인천 계양구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24시

6 ..... **Focus on 인천**
인천광역시 코로나19 발생과 대응 현황

10 ..... **공공보건의료 Alive**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엄중식 단장 인터뷰

12 ..... **지원단 주요일정**
추진성과 · 향후계획

인천 계양구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24시

글 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 한영란 소장

2020년 1월20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가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첫 확진자 발생 이후 8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새로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을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명명하였다. 2020년 9월4일 현재 코로나19 발생현황은 전세계 확진 2,647만명(사망 84.7만명), 우리나라 확진 20,842명(사망 331명), 인천시 확진 773명(사망 3명), 계양구 확진 112명(사망 0명)이다.

계양구청 6층에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다. 보건소 방역대책반이다. 보건소가 구청 청사에 위치해 있어 6월부터 방역대책반을 보건소 2층 보건교육장에서 구청 6층의 회의실과 교육실을 활용해 배치하여 확대운영하고 있다. 물론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특성상 보건소 옆 주차장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24시간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곳이다.

방역대책반에는 100여명의 보건소 전직원이 기존의 업무를 중단하고 근무하고 있다. 역학조사팀, 현장지원팀, 선별진료팀, 접촉자(자가격리)관리팀, 콜센터 운영팀, 방역관리팀, 역학조사서 입력팀, 정신심리상담팀, 의료기관 감염예방팀, 소내 감염병관리팀, 총괄지원팀(환자 및 검체 이송 포함)으로 나누어 서로 협업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인력으로는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가 늦어지고, 손실보상 지원분야와 마스크 의무착용 홍보 업무 등 새로운 업무들이 증가하면서 9월부터는 구청에서 직원 20명이 지원되어 함께 하고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초기에는 2015년 메르스 이후 구입한 음압텐트와 음압기가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운영하였고, 직원들이 5~6월 무더위에 방호복을 착용하고 진행하면서 땀이 줄줄 흐르고 탈진 직전까지 가기가 일쑤였다. 6월말부터는 워크스루 검사, 글로브월과 검사접수를 할 수 있는 에어컨이 설치된 컨테이너를 인천 최초로 도입하여 직원들이 체력보전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상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역학조사팀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여 밀접접촉자를 분류하고 신속히 자가격리와 검사안내를 한다. 이후 현장조사팀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방문하여 CCTV를 분석하며 인천시 역학조사관과 협의하여 격리 및 검사 대상자 범위를 결정한다. 접촉자(자가격리)관리팀은 자가격리자와 구청 직원을 매칭하여 자가격리 통보서와 격리 시 필요한 체온계 등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매일의 건강상태와 관리상황을 확인한다.

각 생활분야의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홍보와 점검은 구청의 모든 부서 직원들이 나누어 담당한다. 의료기관

감염예방팀은 요양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의 환자나 종사자가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우선 안내한다. 이런 과정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예방과 전파차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모든 공무원과 구민들이 함께 할 때 코로나19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계양구에서는 3월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5월 중순까지 확진자 7명이 입원 후 퇴원하였다. 그러나 5월 연휴 이후 부천쿠팡물류센터 관련과 기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5월25일부터 31일 사이에 30명이 발생하였고 5월28일에는 하루에 11명이나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루에 1000건 이상의 검체채취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역학조사로 직원 모두가 밤낮, 주말 없이 일한 매우 힘든 시기였다.

이후 9월4일 현재까지 1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7월까지 55명, 나머지 절반 이상이 8월 중순이후에 발생하였다. 그런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소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확진자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는 5월 말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너무 많은 확진자가 한꺼번에(8월22일에는 하루에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처리들이 지연되고 예기치 않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와 상시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깨닫게 된다. 확진자 대부분은 증상을 잘 이겨내시지만 상태가 좋지 않고 합병증과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다. 이런 피해가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포함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소가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한 지 8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모두 합심하여 대처하였고, 안전총괄과를 비롯하여 구청에서도 예산과 인력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주민들이 보내주시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는 지친 직원들이 더욱 보람을 느끼게 하였고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힘을 내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 현재 우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달 말의 추석 연휴 이후와 또 다른 바이러스 질환인 독감유행과 함께 가을과 겨울을 지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위험이 많겠지만 경험이 쌓이고 있는 보건소를 비롯한 방역관계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행정관계자, 환자의 치료와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관계자,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의 확진자 발생을 유지하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인천광역시 코로나19 발생과 대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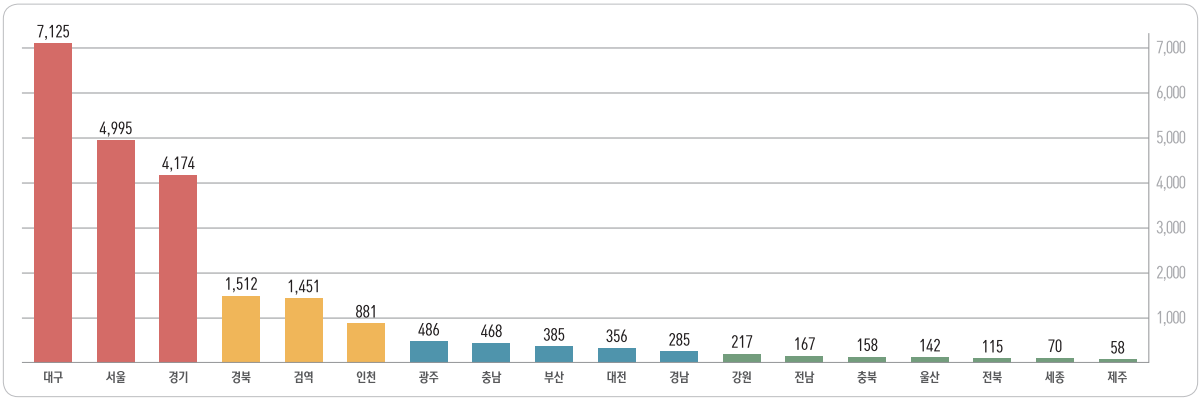
코로나19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1~14일(평균 5~7일)의 잠복기를 가지며 주로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재채기, 기침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비말감염)되거나,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이 묻은 손이나 매개체와 접촉하고 눈, 코 또는 입을 만져 감염(접촉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이 있으며,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백신은 없으며, 우리나라 치명률은 1.67%(20.09.21.0시 기준)입니다.

※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인천광역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인천광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883명(20.09.21.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군·구별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부평구에서 1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구 153명, 미추홀구 138명, 계양구 132명, 남동구 120명, 연수구 96명, 중구 45명, 동구 16명, 강화군 1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옹진군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북권역(299명), 남부권역(216명), 중부권역(199명), 서북권역(16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시도별 발생동향

그림1. 시·도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20.09.21.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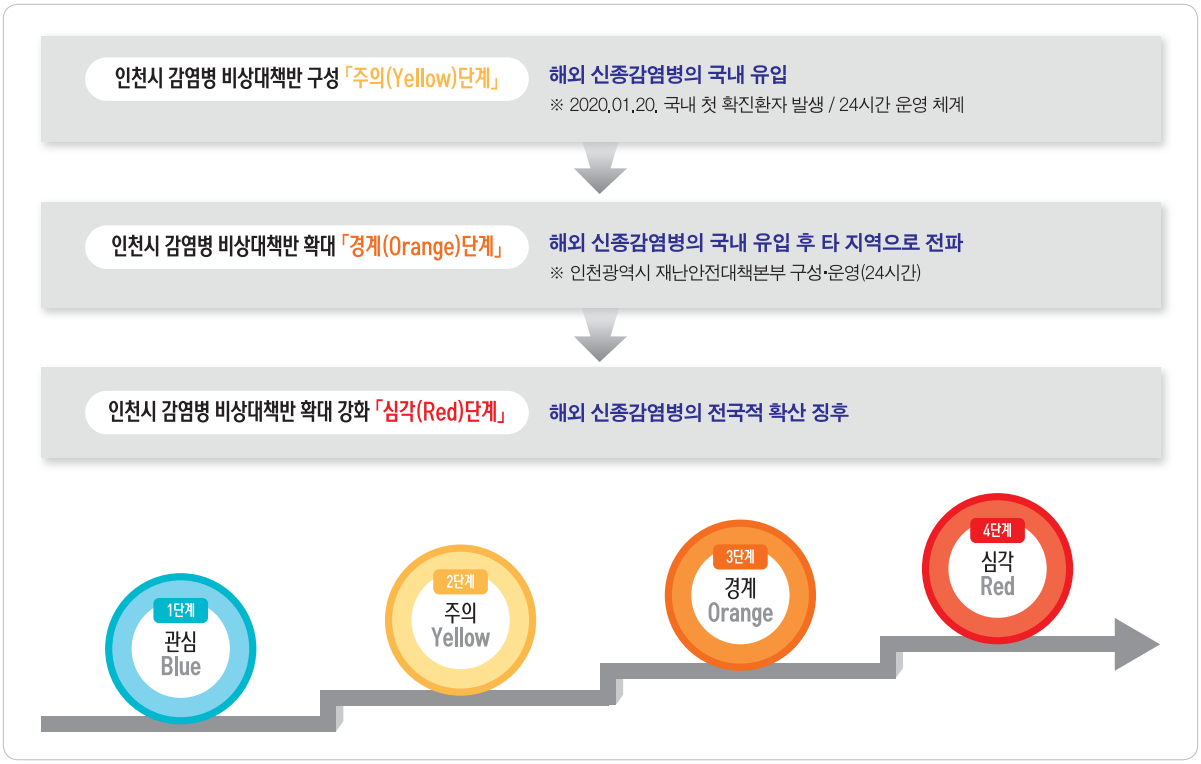
표1. 인천광역시 권역별 코로나19 발생 현황(20.09.21.0시 기준)

중부권역				남부권역		동북권역		서북권역		기타*	총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45명	16명	138명	0명	96명	120명	167명	132명	153명	14명	2명	883명

* 외국인(인천공항 환승객), 타 시·도 거주자 ※ 출처: 인천광역시, 코로나-19 인천광역시 현황

인천광역시 코로나19 대응체계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및 전국적 확산 우려에 따라, 감염증 위기 경보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감염병 위기 대응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1일 부터는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한 촘촘한 방역체계와 재감염 등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코로나19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응추진단은 3팀 23명 규모로 총괄관리팀, 방역의료팀, 생활방역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그림2. 인천광역시 코로나19 대응체계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통근·통학 등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 작은 감염이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 경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동대응체계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가동됩니다.

표2. 단계별 공동대응방식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황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	일일 확진자 50명 이상 발생	일일 확진자 100명 이상 발생	일일 확진자1,000명 이상
공동대응방식	시범운영 방식으로 1~3개 병원 · 센터 교류 · 협력		본격적인 공동대응체계 가동	

※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계획

인천광역시 코로나19 대응 자원 현황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출입 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선별진료소 및 검체채취 가능 진료소는 중부권역 10개, 남부권역 4개, 동북권역 7개, 서북권역 8개로 총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3. 인천광역시 권역별 선별진료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중부권역				남부권역		동북권역		서북권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공공보건의료기관	2	1	1	2	2	1	2	1	1	1
민간 의료기관	1	1	2	0	1	0	2	2	5	1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전체 선별진료소 현황(20년 9월 21일 12시 기준)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을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으로,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중부권역 9개, 남부권역 3개, 동북권역 6개, 서북권역 6개로 총 24개 국민안심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4. 인천광역시 권역별 국민안심병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중부권역				남부권역		동북권역		서북권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A형*	1	2	5	0	2	0	1	1	3	1
B형**	1	0	0	0	0	1	2	2	2	0

* A형: 호흡기 전용 외부 환자 진료구역을 분리시켜 운영하는 병원
** B형: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용 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 가능한 병원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안심병원 현황 (20년 9월 21일 기준)

인천광역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www.ncov.moh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3개 의료기관, 400병상을 확보해 가동 중에 있으며, 9월 1일 12시 기준으로 152병상(38%)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병상 부족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기존에 감염병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3개 의료기관과 협의해 9월 초부터 169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총 569병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216명 수용규모의 수도권1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192명이 입실해 88.8%의 가동률을 보임에 따라 중구에 소재한 57객실(114명 수용) 규모의 경정훈련원을 9월초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운영하기로 협의를 마쳤습

니다. 또한 SK그룹의 협조를 받아 65객실(130명 수용) 규모의 SK 무의연수원도 예비시설로 확보해 추가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처: 인천광역시 보도자료(20.09.01.).「인천시, 9월초 코로나19 전담 병상·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

2020년 2월 기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전국 29개 병원에 535병상(음압 198, 일반 337)을 구축·운영 중입니다. 그 중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의료원 7개, 인하대병원 4개, 가천대길병원 5개로 총 16개의 1인실 음압격리병상을 운영 중이며, 질병관리청(前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을 통해 인하대병원에 3개 음압병실이 추가 확충 될 예정입니다.

그 외「의료법 시행규칙」제 34조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은 인하대병원 9개, 가천대길병원4개, 인천광역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6개소에 24개로 총 37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5. 인천광역시 음압병실 운영 현황(20.07.30 기준) (단위: 개)

번호	병원명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격리병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음압격리병실
		1인실	입원실 내 1인실
1	인천광역시의료원	7	-
2	인하대병원	4	9
3	가천대길병원	5	4
4	그 외 민간의료기관**	-	24
합계		16	37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3], [별표4] 참고 ** 그 외 민간의료기관: 인천광역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6개소
※ 출처: 질병관리청(前 질병관리본부)(2019),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내부자료

위중·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장비는 이동형음압기 185대, 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17대, CRRT(신장투석장치) 36대, Ventilator(인공호흡기) 308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표6. 인천광역시 위중·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장비 현황(20.07.30 기준) (단위: 개)

번호	병원명	이동형음압기	ECMO	CRRT	Ventilator
1	인천광역시의료원	111	0	1	12
2	인하대병원	18	6	9	119
3	가천대길병원	38	2	8	60
4	그 외 민간의료기관*	18	9	18	117
합계		185	17	36	308

* 그 외 민간의료기관: 인천광역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6개소
※ 출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내부자료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엄중식 단장 인터뷰

+

인천 공공보건의료 지원기관 알리기

본 코너에서는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인천광역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소개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2017년 7월 전국에서 6번째로 설립되었으며, 올해 7월부터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질병관리청(前 질병관리본부)과 인천광역시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인천광역시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시 모니터링, 분석, 역학조사, 대응방법 제시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 등 감염병 담당자 교육과 매주 인천광역시 감염병 관련 소식지를 제작·발송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요양병원의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관련 자문 역할과 여러 중소병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국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마다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계획했던 사업이 많이 축소되거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현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지원 및 확진자 발생 추이 분석, 확진자 동선 추적을 통한 감염 경로 파악, 감염 고위험시설평가 등의 업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내 집단감염 발생 시 역학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역학조사 후, 각각의 확진자 동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선 묻고 답하기를 통해 역학조사관이 동선을 파악하여 1차 보고를 하게 되고, GPS정보, 카드사용정보 등을 통해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은 역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확진자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 그 사이에 매우 많은 접촉자가 생길 수 있고, 격리 등의 방역조치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학조사의 지원과 보완,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1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의 광역시인데, 업무의 강도나 수준에 비하면 구성원 수가 인구대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우호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 텐진시(약 1,400만명)의 경우 인구 17,000명당 1명의 감염병 관리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매우 적은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심도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연구원이 각자 특정 업무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의 세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 시 업무가 폭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 및 예산 확보, 인적구조개선을 위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힘든 점은 확진자가 동선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예기치 못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일례로 검사를 무료로 받기 위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였는데, 며칠 후 다른 확진자 동선을 조사하다 보니 모 교회가 지목되었습니다. 이후 역학조사를 보완·검증해보니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졌고, 그 분이 거짓말을 한 5~6일의 시간 동안 많은 접촉자가 생기고, 격리 등의 방역조치 또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확진 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및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현재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세 속에 교회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 수를 제외하고 보면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 곳곳에서 지역사회감염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9월 이후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역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I-방역'입니다. 'I-방역'은 스마트 방역의 형태로 현재 적은 인력이 많은 업무로 인해 나날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 속에 중복된 업무를 줄이고, 자료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를 선도하기 위한 방역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시 수만 개의 기관을 일일이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관리자가 직접 휴대폰, 태블릿 등을 이용해 입력한 자료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직접 현장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는 곳 또한 무작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형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문제를 검토·확인 중에 있으며, 가능한 올해 안에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인천시민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현재 코로나19는 백신에 의한 방역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약이나 주사를 처방해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이나 방역수칙 발표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인포데믹(Infodemic)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가공되어진 가짜 정보들을 구분하고, 질병관리청(前 질병관리본부), 인천광역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에게 검증되고 안전한 공식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성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협의체 2차 회의 운영지원

인천시 건강체육국장 주관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협의체에서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전략 및 추진과제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 시** 2020년 7월 22일(수) 10:30~13:00 ■ **장 소** 인천시청 지하1층 장미홀

인천광역시 군·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평가

보건복지부 평가일정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일 시** 2020년 8월 5일(수) 10:00~15:00 ■ **장 소** 인천의료원 행정동 3층 회의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인천 보건의료체계 강화방안 모색 소토론회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공동주관하고 인천공공의료포럼과 인천공공성플랫폼이 공동주최로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인천 보건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 시** 2020년 8월 14일(금) 14:00~16:00
- **장 소** 인천YWCA 강당

인천광역시 공공의료기관 대상 운영평가 기술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위하여 해당 공공의료기관 대상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 **기 간** 2020년 6월 29일(월) ~ 7월 10일(금), 8월 20일(목) ~ 9월 4일(금)
- **대 상**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인천제1,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신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실무자 온라인 워크숍

신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업무 이해를 돕고, 기존 지원단과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주관으로 실무자 온라인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기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인천 지원단에서는 권다혜, 김슬기, 이현숙 주임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 **일 시** 2020년 7월 10일(금) 10:00~16:00
- **방 법** 온라인

2020년 제1차 타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및 재단 연석회의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운영된 제1차 연석회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전국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이 모여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각 지역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 **일 시** 2020년 9월 4일(금) 13:00~17:00
- **방 법** 온라인

인천광역시 의료기관 실무자 교육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표준진료지침과 지표관리의 실제'

의료기관 질 향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업 적용을 돕기 위해 인천 내 의료기관 종사자 52명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적용 사례, 질 향상 관리 방법 및 지표 실습 등의 내용을 다룬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 **일 시** 2020년 9월 18일(금) 09:30~17:00
- **방 법** 온라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향후계획

보건·의료 분야 지원단 및 센터 정례회의

2020년 인천시 보건의료 분야 지원단 및 센터의 기관장이 참석하여 2020년 인천 공공보건의료포럼 개최, 연례보고서 제작 등의 공동사업 추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일 정** 2020년 10월 중
- **장 소** 미정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협의체 3차 회의 운영지원

공공보건의료 협의체 3차 회의에서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된 전략 및 추진과제, 구체적인 사업 단위의 실행과제를 논의하고, 2025년까지 추진할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예정입니다.

- **일 정** 2020년 10월 중
- **장 소**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내부 워크숍

지원단 구성원들의 내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스트레스, 번아웃 증후군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워크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일 정** 2020년 10월 중
- **장 소** 미정

2020년 인천 공공보건의료포럼

2020년 인천 공공보건의료포럼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단 및 센터 정례회의에서 결정된 주제로 인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연계·협력의 성과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일 정** 2020년 11월 중
- **장 소** 미정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작성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원

2020년 11월쯤 보건복지부에서 배포될 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10개 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 정** 2020년 11월 ~ 2021년 2월
- **대 상** 인천시, 10개 군·구 보건소 관계자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교육 요구도 및 특화사업 아이디어 조사

인천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수요 및 공공의료 특화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 **일 정** 2020년 10월 중

2020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모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2020년 사업결과 보고, 2021년 사업계획 및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일 정** 2020년 12월 중
- **장 소** 인천의료원 행정동 3층 회의실

IPPI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